

신분제적 질서가 해체된 자리, 권력의 중심에 도달하는 길은 이제 합리적인 장치로 꾸며진다. 일제 초기,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는 서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현상이 있었다. 근대 초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방식으로 일자리에서 탈락되는 것에 저항했듯,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근대화' 된 교육에 저항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면 보통학교에 지원한 100명 중 평균 50여 명이 탈락하기도 하는 극심한 경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현상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세' 하고자 하는 근대적 욕망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형식과 내용 모두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제 바깥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출세'와는 전혀 상관없음은 근대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으리라. 또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삶의 양상이자, 삶의 방식이 되었다.

'폴로 엮은 집', 초암논술아카데미라는 '평범한' 학원이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여기이다. 너무나 척박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그 척박함은 삶의 조건이 된다. 그 속에서 초암은 수동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공부하는 이 땅의 청소년에게 스스로를 세워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익히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고자 했다. 또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살 것과 공부해야 하는 현실을 피해가지 않고 나아가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청소년의 내면에 있는 희망을 읽고자 했다. 물론 초암은 여전히 학원이며, 바로 그 입시라는 북마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의도 또한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여러 방식 중 초암이 추구하는 방식도 유의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제도 그 자체의 부당함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교육이 불평등을 제도화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대안적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존중한다. 그 속에서 초암이 할 수 있는 몫은 제도적 질서 안에서 바로 그 제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질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채 거르기식의 암기와 객관성의 신화가 만들어낸 줄 세우기로 점철된 입시 문화 속에서 논술과 구술이라는 제도는 바로 그것을 일정하게 가능케 하는 힘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제 10여 년이 지났다. 서울의 가장 번두리 시장통 모퉁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논술수업. 삶과 입시를 동시에 말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초암은 '계몽의 강단'에서 과감히 내려와 학생들과 어울렸다. 수업은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루어졌다. 교실은 물론이고 MT, 사이버 공간,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학생들의 삶에 들어가 이야기하고 그들 앞에 놓인 입시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히 맞서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입시로 닫힌 공간이었던 학원을 열린 공동체로 만들었다. 아이들은 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 수업을 하고 때론 수업을 하다가 새벽을 맞아 함께 해장국 집에서 삶의 고민들과 논술로 뒤섞인 속을 풀기도 했다. 학생들은 점점 선생들의 사적 공간으로도 진입해 들어왔고, 그만큼 그들은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다. 그런 아이들이 <아름아이> <똥구는 돌> 등의 모임을 만들고 선생들의 자리를 좁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전문가의 대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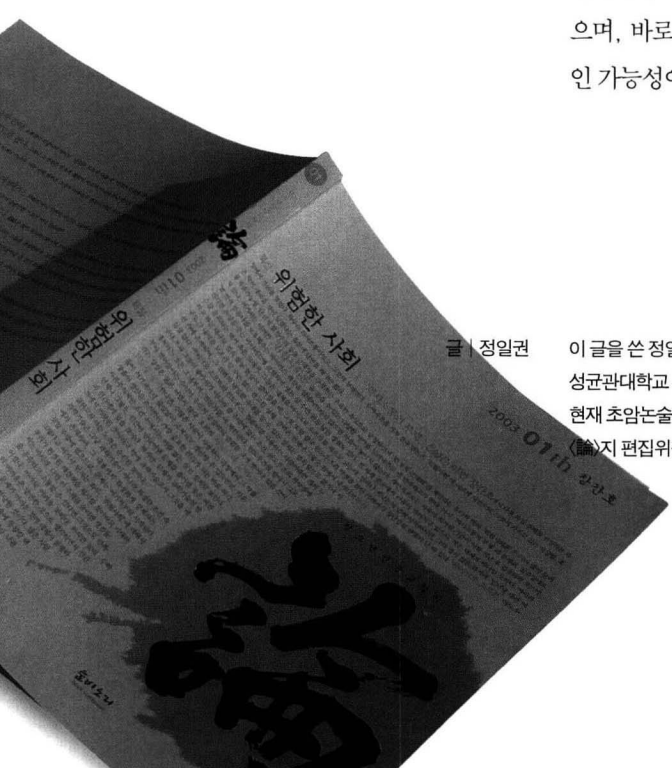
## 입시도 삶, '계몽의 강단'에서 내려와 청소년과 세상을 '論' 하다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학생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커졌다. 그 사이의 변화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는 초암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10여 년 전 변태로 낙인찍혔던 이 유가 되었던 동성애라는 주제는 여전히 관습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상당히 익숙해졌다. 패스트푸드와 현대문명의 속도를 말하면서 느낌의 대안을 말하는 것도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되었다. 관습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법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성된 아이들이 가진 생각이 스스로 편견이었음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논술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경험에 학생들은 열광하였고, 초암의 선생들은 고무되었다.

희망. 우리가 본 것은 희망이었다. 적어도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순과 부당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만일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부정이 아니라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그렇듯 현실은 모순덩어리이고, 그 덩어리 속에는 한 가지의 특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 무질서하게 공존한다. 적어도 어떤 희망이 느닷없게 외부에서 주어진다거나, 현실과 무매개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현실의 자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대학입시에 논술시험이 도입된 것은 행운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실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논술을 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을 넓히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바로 그 논술은 입시의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논술이 입시의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논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과 우리들이 처음에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논술을 같이 써내려 가는 과정 속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우리들의 간극은 좁혀질 수 있었으며, 바로 그 점은 우리가 발견한 긍정적인 가능성이자 희망이었다.

발행인 이윤호 씨를 비롯한 10명의 편집위원들이 청소년 인문교양지 《論》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앞서 말한 희망을 소통하기 위함이다. 다만 적어도 《論》은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장치를 통해 청소년을 동화속의 난장으로 가두고자 하는 욕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청소년이 난장이라면, 그 난장은 스스로 크고 있으며, 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 거인의 무릎을 탈 줄 아는 지혜도 가지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한다. 앞으로 《論》은 적어도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스스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절름발이 잡지가 될 것임에 대해서 착잡하지만 인정한다. 오히려 조건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論》이 잘 팔리는 잡지가 된다면,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여 어정쩡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이 현실의 부정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 현실이 지지고 뉘어야 하는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 현실을 희망의 근거로 만드는 작업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교육을 입시위주의 학벌주의 교육이라 비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희망의 잠재성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희망은 어떤 천재의 머리 속에서 만들어져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느닷없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글 정일권

이 글을 쓴 정일권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초암논술아카데미 강사로  
《論》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